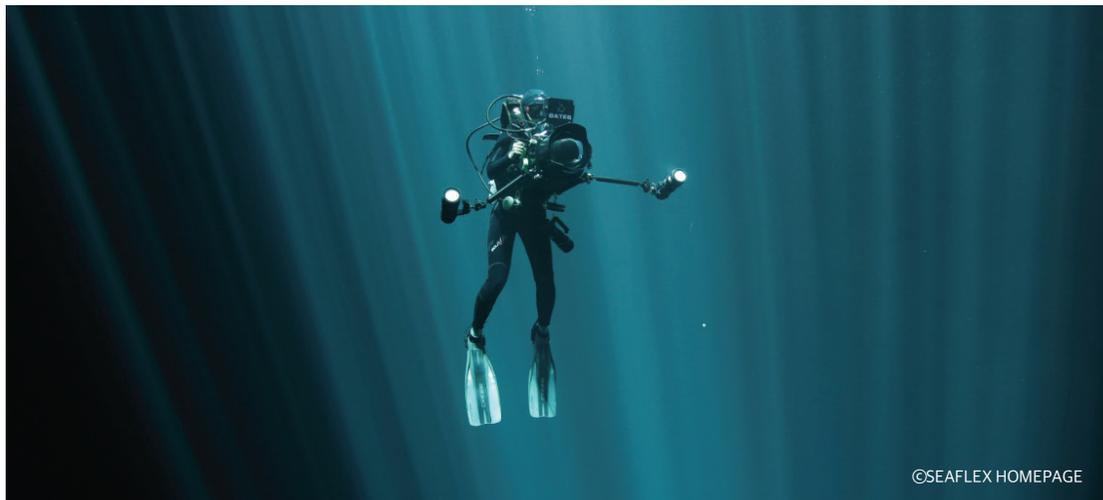


# ‘불모지’ 수중촬영 외길... 봉준호도 반한 기술로 세계에 우뚝선 씨플렉스필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대저택에서 빠져나온 아버지와 아들, 딸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반지하방으로 향한다. 하염없이 계단을 내려와 도착한 집은 이미 물바다가 됐다. 모든 가재도구가 물에 잠기거나 동동 떠다니고, 번기는 실 새 없이 역류한다.  
글 김태환 객원기자 kimthin@mtn.co.kr



©SEAFLEX HOMEPAGE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한 장면이다. 반 지하방 침수는 이야기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과 몇 시간 전, 주인집 저택에서 비를 보며 ‘운치 있다’고 말하던 가족들은 반지하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며 현실로 내던져진다. 이러한 장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칸 영화제 본상을 기생충이 수상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장면은 씨플렉스필름이 촬영했다. 씨플렉스필름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중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 촬영 기업이다. 기생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촬영하는 대부분의 영화 수중 장면은 씨플렉스필름이 찍었다.

씨플렉스필름이 참여한 영화 몇 편을 예로 들면 공작과 악녀, 군함도, 신과함께, 해적,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해무, 용의자, 관상처럼 작품성과 흥행 모두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 많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작품 참여도 많다. 각시탈을 비롯해 근초고왕, 신기생던, 난폭한 로맨스, 도깨비에서도 수중촬영을 맡아 진행했다.

### 할리우드도 놀란 촬영 장비 보유

수중촬영은 특수촬영으로 분류된다.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장비에 방수 처리를 하는 게 필수다. 장소도 중요하다. 파도가 심하거

나 부유물이 많은 자연 공간에서는 촬영이 어렵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다. 야외 촬영장은 겨울에 얼어붙어 촬영하기 어렵다. 깊은 물속을 표현하면서 장비 움직임이 원활하려면 수직으로 수십 미터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화 관계자들은 수중 촬영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무중력’을 꼽았다. 이들은 수중 촬영을 ‘우주정거장에서 나사 끼우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한다. 물속에서 부력이 작용해 인위적 장치가 필요하고, 몇 배 이상 더딘 속도로 촬영한다. 물속에서는 공기가 없어 시간 제한도 많다. 장시간 압축공기를 이용해 호흡하면 질소에 의한 마취 현상도 나타난다.

이렇다보니 관련 인력 육성이 어려워, 영화 내에서 수중 장면을 아예 빼버리는 사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생해 촬영했는데 결과물이 노력에 비해 시원찮은 경우도 많았다.

씨플렉스필름은 할리우드도 깜짝 놀랄만한 촬영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카메라 방수를 담당하는 ‘하우징’이 특별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촬영감독이 직접 물에 들어가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찍었다. 이렇게 하면 물속 왜곡현상과 카메라 심도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아 NG가 자주 발생한다.

씨플렉스필름 하우징은 외부에서 리모트 장치를 활용해 원격으로 조정한다. 물 밖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 감독은 지상에서 각도를 잡고, 나머지는 촬영을 전담하는 사람이 조정한다. 감독이 정확하게 초점과 각도를 확인할 수 있어 초점이 빗나가는 경우가 사라졌고, 촬영 진행도 빨라졌다.

### 세계 최고 하우징 기술로 생동감 넘치는 영상 확보

또 기존에는 고정샷만 찍을 수 있었다. 초점을 겨우 맞춰 놓았는데 위치를 이동하면 다시 초점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씨플렉스필름 장비를 사용하면 ‘무빙샷’이 가능하다. 외부에서 정확히 초점을 보고 계속 잡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방향으로 영상 각도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촬영 결과물이 기존보다 역동적으로 나와 생동감 넘치는 영상이 만들어진다.

하우징 호환성도 좋다. 과거에는 카메라별로 따로 전용 하우징을 사용해야 했다. 촬영 중간에 다른 카메라를 이용해야 할 경우 하우징을 다시 교체한 뒤에 사용했다.



씨플렉스필름의 수중 촬영장과 카메라 방수 하우징.

케이블을 꽂거나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할 때도 물 밖으로 장비를 꺼내 작업한 뒤에 다시 들어가야 했다. 가장 영화산업이 발달한 미국 할리우드 역시 마찬가지다.

씨플렉스필름 하우징은 여러 카메라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작은 카메라는 일부를 접어서 적용할 수 있다. 마치 스마트폰 케이스가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미집과 크레인 장비 모두에 방수 하우징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면 지상에서 찍으면서 바로 수면이나 수중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촬영할 수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물에 빠질 때, 주인공 시점으로 빠지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롱테이크로 보여줄 수 있는 셈이다.

### 영상과 스토리 질 높이고, 비용 절감

이처럼 뛰어난 촬영기술을 확보하자, 영화 스토리가 다양해지며 상승 효과를 이끌어냈다. 김준희 씨플렉스필름

대표는 “멜로나 드라마 같은 현실 속 이야기에서 점점 인간이 추구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한 사유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또 김준희 대표는 “해양이나 수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도 기술이 부족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중촬영 기술이 확장되면서 해양 분야에 관한 소재를 영화에서 많이 다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비용절감이다. 씨플렉스필름 장비는 기존대비 약 30%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영상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

김준희 대표는 “씨플렉스필름 보유 장비는 할리우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 있는 수준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몰라준다”며 “너무 좋은 걸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반면 중국이나 미국 영화 관계자들은 이미 씨플렉스 장비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씨플렉스는 수중촬영 관련 장비 특허 출원을 10개나

했고, 이 중 7개는 이미 특허가 등록됐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모든 장비마다 디자인특허를 모두 획득했다.

이렇게 뛰어난 장비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R&D 사업 수주가 큰 도움이 됐다고 씨플렉스 측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단비사업에 참여해 3억 원 예산을 지원 받아 제작한 ‘크레인 웨이트 무게 가변시스템’이 있다.

**콘진원 단비 사업 성과로 세계시장 공략**

물에는 부력이 있다. 크레인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저항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크레인 끝에 달린 추를 앞으로 이동해 무게를 늘려줘야 자연스럽게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제품은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LA 촬영장비 전시회인 ‘씨네 기어’에서 할리우드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씨플렉스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씨플렉스필름은 미국 LA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LA 거점을 기반으로 할리우드 영화사 관계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한다는 목표다.

김준희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영화 촬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할리우드를 비롯해 중국 진출까지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외 시장은 규모가 너무 커서 꿈조차도 꾸지 못했다. 적지에 뛰어들려면 최소한 적보다 좋은 무기를 갖춰야 할 텐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매출이 많은 기업도 아니고 인원도 적지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중 촬영 업체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씨플렉스필름은 한국에서 100% 수중 촬영만을 위한 촬영장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물속에서 물 위를 보면 하늘이 보여야 하는데 기구가 보이면 CG로 지우기가 힘들다”면서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일정 기간은 추워서 야외에 촬영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파주에 실내 촬영장을 만들 수 있게 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자본금이 생기면 수중촬영 지역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크레인 무게 가변시스템과 각종 방수 케이블.



**INTERVIEW**

**수중촬영 20년 외길...  
“세계 최고 수중촬영 기업이 목표”**

김준희 씨플렉스필름 대표



**수중촬영을 언제부터 시작했나.**

수중촬영만 20년 외길을 걸었다. 1998년부터 수중촬영을 해왔으며,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주로 진행했다. 하지만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영화 수중촬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9년 회사를 설립했다. 영화로 옮길 때는 필름 촬영에서 디지털 촬영으로 전환되는 격변기였다. 이때 제가 디지털 수중 촬영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4등’이라는 영화다. 인권영화인데, 수영을 주제로 한다. 스텝들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렇다보니 모두가 좋은 영화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똘똘 뭉쳐서 작업했다.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사에서 수중촬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마치 교과서처럼 ‘수중촬영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중촬영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협의하고 노하우를 주고받으며, 수중촬영에 관한 표준을 정립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발전된 수중촬영 기술을 체감하고 있는가.**

영화판에서 입소문이 났다. ‘너희 어떻게 찍었어? 우리 누구랑 했는데 어떻게 찍었다’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씨플렉스필름이 알려졌다. 기존에는 수중촬영이 있다면 스텝들이 겁부터 먹었다. 힘들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게다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CG를 쓰기 전에 최대한 실사 촬영을 많이 하면, CG의 완성도도 올라간다. 씨플렉스필름이 CG 기술을 서포트하고 있는 셈이다.

**장비가 다양하다. 연구개발은 어떻게 하나.**

대표인 제가 직접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이디어는 해외 전시회를 참관해 제품들을 차분히 관찰하며 많이 얻어온다. 그리고 제품을 가져다 놓고 스텝들과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한국에선 수중 장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조선소 외에는 이렇다 할 장비조차도 구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해외 수중촬영 제품을 수억 원어치 구매하기도 했다. 이때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쓰면서 불편한 부분을 변경하는 식으로 느리지만 차분하게 개선해 나가며 발전시켰다.

**회사 규모는.**

영화 스텝 6~7명으로 꾸려진 작은 회사다. 상주 직원은 5명 정도다. 매출이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1등뿐 아니라,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LA에 지역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중국 완다스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